

순천시, 순천만 일대 해안가 해양쓰레기 일제 대청소 실시

주민·단체·공무원 등 1000여 명 20여 톤 수거에 구슬땀 “지역주민·민간단체 주도 자발적 정화활동 정착됐으면”

순천시는 최근 저조 시간대인 이른 아침 7시부터 주민과 환경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등 총 1,000여명과 함께 순천만 일대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갯벌’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등 철새들의 서식지이자 소중한 습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로, 갯벌보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

해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날 대청소를 실시했다는 것. 순천만 해안 11개 어촌계 약 400명의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순천시새마을회 등 기관·단체에서 500명, 관계 공무원 100명 총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각 어촌계 해안가 갯벌과 조류에 떠밀려 갈대밭 등에 갇힌 플라스틱,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 20여 톤을 수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참여자들

을 격려하면서 “순천만 갯벌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이므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정화활동이 정착 되었으면 한다.”며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설명절과 봄맞이 시기에 민관 단체합동으로 해동 와온에서 별랑 응두까지 일제정소를 실시한 결과, 23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차문화연구회, 창립총회 열고 본격 출범 차 전문가 주축, 천년 보성차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에 나서

천년의 차 역사를 품고 있는 보성군은 지역 대학과 차 전문가가 주축이 된 ‘보성차문화연구회’가 지난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보성차문화연구회는 목포대학교 전·현 교수진과 목포대 국제문화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학우, 보성지역의 차 전문가 등이 모여 결성한 연구회다. 창립총회에서는 경과보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임, 정관승인 등을 의결하고 연구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목포대학교와 보성 차 문화인은 연구회 결성 전인 2019년부터 보성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왔다. 특히 보성전통차 농업 국가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비롯해 뇌원차 복원 등에도 적극 동참했다. 보성차문화연구회는 앞으로 보성 차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 연구용역, 학술교류, 저서 출판 등을 통해 보성의 차 문화와 차 산업에 관

한 조사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창립총회는 보성군 북채(북채출)에서 열렸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와 정현식 경상대 한국차문화연구원장, 신정호 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 박근형 전남대 명예교수, 서상규 보성차생산지조합장, 이정우 보성차문화회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와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군수는 “세월이 지워버린 흔적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보성차의 지난 천년을 찾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중심에 보성차문화연구회가 함께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기정 회장은 “보성의 차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면서 “이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대학과 차문화 연구 전문가들이 우리의 차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확정

내년 4월 전남경기장 일원에서 개최...30개국, 선수와 운영요원 8백여 명 참가

여수시가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2년 코리아 오픈대회 이후 21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메이저급 배드민턴 국제대회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난 7월 광양시 등 개최 희망도시에 대한 현장평가와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를 열고 개최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 4월중 전남실내체육관 등 전남경기장 일원에서 6일간 열리게 된다.

전 세계 30개국 500여 명의 최정상급 선수와 운영요원 300명 등 총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을 통해 국내와 해외 20개국에 중계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고흥군, 폭염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활동에 총력 농진청 개발 에어냉각조끼 보급 등 사업지원과 안전교육 실시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한 농작업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지원과 농업인 안전교육을 펼치고 있다. 여름철 농업인은 불볕더위에 야외와 시설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온열질환에 걸리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를

더위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고열 스트레스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한 농작업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평소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농작업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활성화 간담회’

광양시는 지난 25일 락호텔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테크노파크, 광양항 입주기업 협의회 등 광양항 유관기관·단체가 참석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함께 고민할 것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윤성 한국해양대 교수는 부산, 인천, 울산의 경제 기여도를 사례로 들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항만의 위상과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항만의 위상 제고와 광양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 전 일주일간 광양항 항만물류기업의 안전 점검 실태를 직접 조사한 결과를 전달했고, 안전 대응방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항만물류기업들이 논의하고 고심했다. 광양항 활성화를 주제로 유관기관들은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발표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